

## 일제강점기 <옥중가> 연구

고 순 희\*

### 차 례

1. 머리말
2. <옥중가>의 작가 추정
3. <옥중가>의 작품세계
4. <옥중가>의 가사문학사적 의의
5. 맺음말

### | 국문초록 |

<옥중가>는 4음보를 1구로 계산하여 440구나 되는 장편가사로 한국가사문학관에 소장되어 있다. 창작시기는 1924년이며, 창작지는 대구 감옥이다. 이 논문의 목적은 <옥중가>의 작가를 추정하고, 작품세계를 살핀 후, 가사문학사적인 의의를 규명하는 데 있다.

<옥중가>의 작가는 안동의 명문대가 출신으로 의병활동에 이어 독립운동활동을 한 40세 전후의 독립운동가로 추정된다. <옥중가>에서 서술한 사건은 1922년에 대구에서 발생한 조선독립운동후원 의용단사건으로 보이며, 작가는 이 사건으로 체포되어 재판에 넘겨진 총 42명 가운데 한 사람일 것으로 추정된다.

<옥중가>의 작품세계는 작가의 감옥 생활과 그에 따른 서정적 중심을 이룬다. <옥중가>는 시간적 순서를 밟아기는 체계적인 서술구조를 지닌다. 작가는 자신의 출생과 성장, 개화기의 도래, 의병 활동, 을사조약과 경술국치, 독립운동가로서의 생활, 체포, 투옥, 감옥의 이모저모, 첫겨울부터 다다음해 봄까지의 감옥 생활과 서정 등을 시간적 순서대로 서술해나갔다.

<옥중가>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가사문학사적 의의를 지닌다. 첫째, 거의 4자 4음보 연속의 형식 안에서 도 중국 고사와 한시를 인용한 고어체 문체, 은유적 표현, 집약적이고 생동감 있는 우리말 표현 문체 등 다양한 문체를 사용함으로써 탁월한 표현 능력을 보여준다. 둘째, 일제강점기 한 독립운동가의 저항활동과 일제의 탄압 현실을 생생하게 증언하는 다큐멘터리로 기능한다. 셋째, 독립운동가의 가사 작품 중 하나이면서 신태식의 <창의가>와 함께 독립운동가의 감옥 생활과 투옥 당시의 서정을 담고 있다. 넷째, 일제가 강점한 후인 1910년대에 이어 1920년대에도 역사·사회에 대응해 작품을 창작하는 가사문학사의 큰 흐름을 연속할 수 있게 한다.

핵심어 : 옥중가, 가사, 독립운동가, 대구, 의용단

\* 부경대학교.

## 1. 머리말

일제강점기에도 가사문학은 활발하게 창작되었다. 특히 안동을 중심으로 한 경북지역에서는 가사를 창작하고 향유하는 전통을 일제강점기에도 계속 이어나갔다. 이 지역에서 최근까지 발굴되는 가사 필사본은 대부분 일제강점기에 창작된 것들이라고 할 수 있다. 일제강점기에 창작된 가사문학 작품 중에는 일제강점기의 역사·사회적 현실에 대응한 의미 있는 작품도 많이 있다. 일제강점기 가사문학의 전개 양상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현재 전하고 있는 필사본을 세밀하게 읽어 의미 있는 작품을 선별해낼 필요가 있다. 그리하여 우선적으로 작품의 창작시기를 확정하고, 작품의 양상에 따라 유형 연구나 개별 작품론을 진행해야 할 것이다.

이 논문에서는 일제강점기의 역사·사회적 현실에 대응하여 창작된 <옥중가>에 주목했다. <옥중가>는 한국가사문학관에 소장되어 있다<sup>1)</sup>. 한국가사문학관 홈페이지에 원텍스트가 jpg 파일로 올라와 있어 누구나 열람할 수 있으며, 원텍스트의 DB 파일과 해석본도 올라와 있다. 이 가사는 필사본에 제목이 쓰여 있지 않아 한국가사문학관 홈페이지에 ‘무제’로 올라와 있다. 그런데 이 작품은 한 독립운동가의 감옥 생활과 감옥에서의 서정을 서술하고 있으므로 이 논문에서는 이 작품의 제목을 <옥중가>로 명명하고자 한다.

한국가사문학관에 올라와 있는 해석본은 그 해석이 비교적 쉽고 일반적인 한자어구에 국한해서 이루어졌을 뿐이다. <옥중가>는 내용 가운데 매우 많은 중국 고사, 중국 한시, 한자어구 등이 나오므로 이러한 것들을 하나하나 조사하여 내용을 해석해야 한다. 그런데 이것들의 국문 표기 자체가 와전된 것도 많아 자구의 해석이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니다. 특히 국문으로 적은 한시 구절은 어떤 시인의 시구절인지가 파악되어야 그 내용을 해석할 수가 있는데, 한시에 대한 필자의 능력은 이것들을 수행하기에는 턱없이 모자랐다. 필자가 <옥중가>의 전체적인 내용을 파악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작품론을 쓰지 못한 것은 작품

1) <무제>, 한국가사문학관, <http://www.gasa.go.kr/>

전체에 걸쳐 해독하지 못한 부분이 마치 지뢰밭처럼 널려 있기 때문이었다.

이렇게 해석 상 아직 해결하지 못한 구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필자는 <옥중가>의 작품론을 감히 시도해보고자 한다. <옥중가>가 일제강점기인 1920년대의 역사·사회 현실에 대응한 매우 의미 있는 작품이기 때문이다. <옥중가>는 440구나 되는 장편으로 한 독립운동가가 독립운동을 한 죄로 일제에 의해 투옥된 후 감옥에서의 생활과 서정을 서술한 작품이다. <옥중가>는 가사문학이 일제강점기에도 활발하게 창작되었다는 사실을 넘어서서 일제의 압제 현실에 가사문학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대응한 장르였는지를 잘 드러내고 있는 작품이다.

이 논문의 목적은 <옥중가>의 작가를 추정하고, 작품세계를 살핀 후 가사문학사적인 의의를 규명하는 데 있다. 먼저 2장에서는 <옥중가>의 작가를 추정한다. 그리고 3장에서는 <옥중가>의 작품세계를 살핀다. 작품세계는 가능하면 쉽게 풀어서 해석해주는 방식이 일반적이지만, 여기에서는 오히려 한자어구를 첨부하여 해석하는 방식을 택할 수밖에 없었다<sup>2)</sup>. <옥중가>에서 국문으로 표기된 한자어구의 실제 한자를 써 줄 때 그 의미가 더욱 분명해지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4장에서는 앞서의 논의를 바탕으로 <옥중가>의 가사문학사적인 의의를 규명하고자 한다.

## 2. <옥중가>의 작가 추정

<옥중가>는 작가가 1922년 10월 보름 경[음력]에 체포되어 다음해 춘하추동을 지내고 그 이듬해 봄을 맞이한 것까지를 담았다. 따라서 <옥중가>의 창작 시기는 1924년 봄경이며, 창작지는 옥중이다.

2) <옥중가>는 원텍스트의 해독이 어려운 작품이다. 이 논문에서 원텍스트의 해독은 작품세계를 논의하는 자리에서 소단락의 요약과 인용구절에 한정하여 행할 수밖에 없었다. 이 논문에서 인용하는 구절은 원텍스트의 한글 표기를 그대로 옮겨 적었다. 만약 필자의 해석에 오류가 있다면 뒤의 연구자가 밝혀주기를 기대해서이다. 한편 인용 구절에 나오는 중국 고사, 중국 시구절, 한자어구에 대해 그때그때 주를 달지 않고 한 문단 단위로 통합하여 주를 달고 그 의미를 적었다.

<옥중가>의 작가는 알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작품에 서술되어 있는 작가에 대한 단편적인 정보를 종합하여 작가를 추정해 볼 수밖에 없다. 특히 서술단락 ② ‘항일투쟁의 생애’와 서술단락 ③ ‘1922년 체포’에 작가에 관한 정보가 집중적으로 나타난다.

가) 차좁다 부유인세 사싱고락 춘몽이라 / 문노니 습기평성 다소역사 무엇인고 / 사  
천연 예의동방 오빅연리 문치로서 / 류로지향 티여나니 사티부지 원림이라 / 충  
군데장 웃듬이오 입신양명 의당신라 / 시화세풍 죽마시덜 당구풍월 읍피올데 /  
녹슈진경 더길우에 압선사람 그누기나 / 금관초복 게나도라 당둥물노 자랑터니

나) 덩덤슈운 구름밭게 데비흐쌍 나라간다 / 나라가는 더데비야 너어디로 나라가나 /  
화산고국 들기든 옥둥소식 던히다고

가)에서 작가는 자신이 “사티부”의 “원림”인 “류로지향”에서 태어났다고 했다. 그의 문중인은 입신양명을 계속하여 金冠朝服조차 掌中物로 여길 정도였다. 이런 가문에서 성장한 작가는 자신의 가문을 매우 자랑스러워했으며, 죽마시절부터 배움의 길에 나갔다. 보통 ‘추로지향’은 퇴계의 고향인 안동을 가리킨다. 작가의 고향이 안동임은 나)에서 보다 확실해진다. 작가는 날아가는 제비를 향해 ‘화산고국에 들어가거든 자신의 옥중 소식을 전해 달라’고 했다. 여기서 “화산”은 안동의 옛이름이다. 따라서 작가는 안동 명문대가 출신의 인물임을 알 수 있다.

세강속말 어언간에 춘당티하 석양이라 / 학서불근 거들치니 이팔광음 허시로다 /  
초당춘수 느깃씨니 다다위리 신세계라 / 순지도난 천당부오 책지도가 상등이라 /  
무던천지 소영웅은 선각자의 말일런가 / 쓴공둥에 누른금은 질독자의 선득이라 /  
히인의기 아니거든 도두산치 못할손나 / 십년활게 헛당담이 가도사벽 우습고나 /  
그나마 십년풍파 창낭자취 이아닌가 / 거목산하 달났으니 왕실여회 잇썌로다 / 녹  
임지던 미친원수 골수에 깃헛고나 / 오디역이 탁난할데 을스도약 통분하다 / 승상  
사당 푸른디는 엽엽히 호쇼호고 / 히아로 오는소식 천고렬스 빅그렛네 / 합이빈두  
벽역불에 차든눈을 번쩍키니 / 국사무쌍 간곳엮고 슈운침첩 이러난다 / 경술년 칠

월장마 방방곡곡 홍수로다 / 익인심지 다간혜여 무거천지 망망이라 / 불분심천 험  
 흔적을 천방지축 무산일고 / 구년지슈 도량업서 과문불립 험단말가 / 빅발북당 더  
 바리고 강호낭덕 부지렵다 / 흥기쳐즈 다던지고 포식난의 심각겐나 / 객스풍상 다  
 격것다 축도란여 상천하니 / 검슈도산 곳곳지라 흥거름이 자차런들 / 천잉김감 몇  
 몇번고

위에서 작가는 구한말부터 전개된 시국과 당시를 살아간 자신의 삶을 서술했다. 작가의 나이가 16세가 되던 때에 일제의 강점 야욕이 노골화되어 조선의 운명이 “출당티하 석양”의 상황으로 치닫게 되었다. 그리고 너도나도 이익을 쫓는 [孳孳爲利] 신세계가 도래했다. 이런 無錢天地에서 선각자는 개화사상을 부르짖고, 반면 공중에 뜬 금덩이가 있는 곳에서는 빨리 달려 가 집는 자[疾足者]가 임자가 되었다. 그리하여 작가는 학문을 그만 두고[學書不近] 고향을 떠나 십년[十年風波]을 방랑하기에 이르러[逃走散置], 집안은 네 벽만 남을 정도로 어렵게 되었다[家徒四壁]. 급기야 을사오적[五大逆]으로 인해 을사조약이 체결되었다. 헤이그로 파견된 이준 열사는 할복자살하고(“히아로 오는소식 천고털스 빅그렛네”), 안중근의사는 하얼빈역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했다. 그러나 나라의 훌륭한 선비[國士無雙]는 더 이상 나오지 않고 나라의 상황은 점점 더 어두워져갔다<sup>3)</sup>.

결국 경술국치를 당하고 마니 작가는 자신의 고달픈 인생이 슬프고[哀人生之多艱兮] 어디로 가야할지 몰라 아득했다[無居天地 茫茫]. 그리고 오랜 홍수[九年之水]에 허덕이는 이 험한 때를 천방지축 다니느라 집에 한번 들르지도 못했다[過門不入]. 백발의 부모와 처자식을 버리고 여기저기를 떠다니다 보니[江湖浪跡], 飽食暖衣는 생각지도 못하며 온갖 풍상을 겪으며 살았다. 푸른 하늘을 오르는 것보다 어려운 축도의 길[蜀道難於上天]을 가는 것처럼 작가가 가는 길에는 지옥길[劍樹刀山]이 놓여 있어 한 걸음만 자칫 잘못 디디면 거듭하여 지옥길이 잇달아 가슴을 쓸어내려야 했다[滄仍更感]고 했다<sup>4)</sup>.

3) “다다위리 신세계라 / 순지도난 천당부오 척지도가 상등이라”는 『맹자』의 “雞鳴起, 孳孳爲善, 舜之徒也, 孳孳爲利, 跖之徒也.(닭이 울기 시작할 때 부지런하게 선을 위하는 것은 순 임금의 무리이고, 닭이 울기 시작할 때, 이익을 쫓는 자는 척의 무리이다)”라는 구절에서 따온 것으로 여기서는 약간 의미를 비틀었다. 그 뜻은 너도나도 이익을 쫓는 신세계에서 선을 쫓는 순임금의 무리는 죽어나가고[천당부], 이익을 쫓는 척의 무리가 최고[상등]가 되었다는 것이다.

<옥중가>는 정확하게 시간적인 순서를 밟아가며 서술했다. 그런데 위의 인용구에서 “십년활게 헛담담이 가도사벽 우습고나 / 그나마 십년풍파 창낭자취 이아닌가”에서 “십년풍파”의 기준점이 문제가 된다. 신세계가 도래하여 작가가 학문을 폐한 후 고향을 등지고 여지저기를 방랑했다고 한 것은 의병 활동을 말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므로 작가는 을사늑약이 체결되기 전후에 의병으로 활동했던 것으로 보이고, ‘십년’은 경술국치를 기준으로 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작가는 경술국치 이후에도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검수도산의 길을 걸어왔다고 했으므로 독립운동에 가담한 것으로 보인다. 안동은 명문대가를 중심으로 의병의 활동은 물론 경술국치 후 독립운동 활동도 가장 활발했던 지역이다. 이렇게 작가는 안동 명문대가의 후예로 의병 활동과 독립운동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인물이라고 할 수 있다.

천신만고 부득학야 / 십싱구사 잇찌로다 잇찌는 어는씨냐 / 익운이 임술이라 증일  
 월지 기흐련고 / 시세시월 망간이라 평슈상봉 싹을지어 / 디동강상 선유후후 흥강  
 으로 놀을더어 / 금오강두 돛지우고 팔공산 덤은날에 / 달성공원 올라서니 비풍은  
 슬슬흐고 / 낙목은 소소헌데 인영이 지지어를 / 양견헌니 명월이라 철리향회 못의  
 이여 / 흥가상담 건이더니 난테업는 우레소뢰 / 일진광풍 일어난다 동번서홀 번기  
 기운 / 사람이냐 귀신이나 불문곡직 덜이치니 / 더성츠사 네아니냐 천지망아 무가  
 네라

위는 서술단락②의 전문이다. 작가가 체포되는 과정을 서술했는데, 사건과 상황을 은유적으로 서술했다. 때는 임술년(1922년) 10월 15일 경이었다. 작가는 우연히 만난 친구들[萍水相逢]과 대동강을 선유한 후 한강으로 노를 저어 대구 금

4) 애인생지다간혜(哀人生之多艱兮)는 屈原의 <遠遊>에 나오는 “哀人生之長勤(인생의 기나긴 고생을 애닳아하다)”라는 구절에서 따온 것이다. ; 구년지수(九年之水)는 오랫동안 계속되는 큰 홍수로 중국 요나라 때 9년 동안이나 계속되었다는 큰 홍수에서 유래한 말이다. ; 촉도란어상천(蜀道難於上天)은 이백의 <蜀道難>에 나오는 “蜀道之難難於上青天(힘난한 촉도의 길이 푸른 하늘 오르는 것보다 어렵구나)”라는 구절에서 따온 것이다. ; 검수도산(劍樹刀山)은 불교지옥으로, 劍樹는 칼로 된 숲속을 헤매다 잘리고 베이는 고통의 칼숲이며, 刀山은 칼이 뿅뿅이 들어차서 칼에 베이는 고통이 끊임없는 곳이다. ; 천잉갱감(湯仍更感)은 거듭하여 잇달아 그때마다 감회에 젖는다는 뜻이다.

오강에 돛을 지우고 내려 달성공원으로 갔다. 작가 일행은 사람 그림자가 땅에 드리운 가운데 하늘의 명월을 올려다보며 함께 노래하고 화답하며[人影在地 仰見明月 -- 行歌相答] 즐기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우레소리, 일진광풍, 번개 등이 요란하더니 귀신인지 사람인지가 들이 닥쳐 작가 일행을 저승차사처럼 잡아 가니 어찌할 수가 없이 체포되고 말았다고 했다.<sup>5)</sup>

위의 서술단락②에서 작가가 서술한 사건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가장 유력하게 거론할 수 있는 것은 1922년 초겨울에 대구에서 발생한 조선독립운동후원 의용단사건이다. 당시 해외에 임시정부가 수립되자 국내에서는 임시정부에 군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단체들이 출신지역에 따라 조직되었다. 안동인사들이 참여한 대표적인 단체로는 의용단·주비단 등이 있었다. 그 중 의용단은 한말 의병에 이어 조선국권회복단·대동단·대한광복회로 계승된 항일 인맥을 망라하여 조직된 단체였다. 의용단은 1920년 9월에 결성되어 1922년 12월까지 활동했다. 의용단은 만주지역 독립군과 연결되어 있었으며, 특히 서로군정서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었다. 당시 서로군정서의 독판은 이상룡이고 참모장은 김동삼이었기 때문에 이들과 혈연·지연 관계로 얽혀 있는 안동의 인사들이 대거 의용단에 참여하게 되었다. 이들은 인근의 각지를 순회하며 독립운동 자금을 모집하여 서로군정서에 올려 보내는 일을 맡아 했다. 그런데 1922년 11월 말에 이대기, 김사목 등 4명이 일경에 체포된 후 100여명이 붙잡혀 총 42명이 대구지방법원 검사국에 넘겨져 각각 재판을 받았다.<sup>6)</sup>

위의 서술단락②에서 서술한 사건은 대구에서, ‘임술년 시월 망간(음력)’에 일

- 5) 평수상봉(萍水相逢)은 부평초와 물이 서로 만난다는 뜻으로 여행 중에 우연히 벗을 만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 “인영이 지지어를 / 양견하니 명월이라 절리향회 못익이여 / 횡가상담 건이더나”는 蘇軾의 <後赤壁賦>에 나오는 “人影在地 仰見明月 顧而樂之 行歌相答(사람의 그림자가 땅에 보이기에 하늘을 쳐올려보니 밝은 달이라. 옆에 손님들을 쳐다보면서 함께 즐거워서 노래하면서 서로 화답을 하였다)”라는 구절을 따온 것이다.
- 6) 1922년 대구에서 체포된 조선독립운동후원회의용단의 결성, 성격, 활동에 대해서는 심상훈의 『1920년대 초 조선독립운동후원회의용단의 활동과 이념』(『안동사학』 제8집, 안동사학회, 2003, 241~270쪽)을 주로 참조했다. 그 외 참조한 논저는 다음과 같다. 정희창·광복회 대구경북연합기구, 『항일독립운동사』, 경상북도, 1991, 211~214쪽. ; 안동대학교 안동문화연구소, 『경북독립운동사Ⅴ-1920~40년대 국내 항일투쟁』, 경상북도, 2014, 183~189쪽. ;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편, 『독립운동사자료집 10-독립군전투사자료집』, 독립유공자사업기금운용위원회, 1971, 747~751쪽.

어났다고 했으므로 1922년 초겨울에 대구에서 발생한 조선독립운동후원 의용단 사건일 가능성이 많다. 그렇다면 작가는 이 사건으로 체포되어 재판에 넘겨진 총 42명 가운데 한 사람으로 추정할 수 있다. <옥중가>에서 서술한 작가에 관한 단서에 따르면 작가는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는 인물이다. 1) 안동의 명문대가 출신이다. 2) 경술국치 전은 물론 후에도 계속 항일활동을 한 인물이다. 3) 자신을 “불노불소 반평생”이라고 했으므로 아무래도 나이는 40세 전후이다<sup>7)</sup>. 4) 작가의 모친은 3월 27일이 기일이고, 부친은 70세로 생일이 4월 30일이며 1923년에 작가를 면회하러 왔으므로 당시까지 생존해 있었다.

이 조건에 따라 일단 당시 체포된 인물 가운데 안동 출신 인물을 걸러보면 김시현·김용환·김응섭·김규현·이종국·이대(태)기 등이 된다. 김시현과 김응섭은 안동 풍산 출신이며, 김용환과 김규현은 학봉 김성일의 후손으로 안동 서후면에서 출생하였고<sup>8)</sup>, 이종국과 이대기는 안동 출신으로 이상룡과 같은 집안사람이다. 한편 의병활동을 한 적이 있는 이력으로 걸러보면, 이종국(35세)과 이대기(35세)는 독립운동가 공훈록에 의병으로 활동한 기록이 없어 제외된다.

남은 인물 가운데 40세 전후의 나이로 걸러보면 김시현, 김응섭, 김용환, 김규현 등이 남는다. 그런데 김시현은 1911년에 일본에 유학하여 1917년에 귀국한 후 민족 문제에 정면으로 맞서기 시작한 시기는 1919년 3·1운동 무렵이기 때문에 경술국치 이후에 집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독립운동을 한 작가의 이력과 맞지 않는다. 그리고 김응섭도 1911년에서부터 1912년까지 판사, 검사를 역임하다 이후 대구에서 변호사로 활동했기 때문에 역시 작가의 이력과 맞지 않는다. 한편 학봉의 종손인 김용환은 족보를 확인한 결과 부모의 생몰연월이 가사에서 서술한 사실과 맞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학봉 김성일가의 집성촌인 안동 서후면에서 출생하여 의병 활동에 투신하다 1922년 체포된 김규현(1886년생)은 <옥중

7) 작가는 일제의 강점이 노골화되던 19세기 말에 자신의 상황을 “세강속말 어연간에 춘당퇴하 석양이라 / 학서불근 거들치니 이팔광음 허식로다”라고 하였으므로 19세기 말에 16세 정도였음을 알 수 있다.

8) 김규현의 체포 기록에는 본적이 ‘경상북도 상주군 화북면 상오리’로 되어 있다. 그러나 김규현은 ‘안동시 서후면 성곡리 510’에서 출생하고 성장했으며, 다만 체포되기 전에 상주군으로 이사를 가 살았다고 한다. 독립유공자 서훈기록에는 본적이 ‘안동시 서후면’으로 기록되어 있다.

가>의 작가로 가장 가능성이 높은 인물이었다<sup>9)</sup>. 그러나 김규현도 족보를 확인한 결과 부모에 관한 사실이 가사에서 서술한 사실과 약간씩 다르게 나타났다. 그리하여 현재로서는 <옥중가>의 작가로 어느 한 인물을 특정할 수 없는 실정이다. 가사에서 서술한 사실이 작가의 의도든 아니면 어떤 식으로든 사실과 다르게 쓰였을 수 있다.

그리하여 작품에서 서술한 사건이 1922년에 일어난 대구 조선독립운동후원 의용단사건이 아닐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조사해본 각 인물의 족보 자체가 잘못 기재되었거나 불완전하게 기재되었을 가능성도 있다<sup>10)</sup>. 어쨌든 가사에서 서술한 사건이 여기에서 조사해본 대구 조선독립운동후원 의용단사건이 아닐 가능성과 대구 조선독립운동후원 의용단사건과 관련한 인물 중 한 사람일 가능성을 모두 열어두고 작가를 좀더 조사해보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 3. <옥중가>의 작품세계

<옥중가>의 서술구조는 크게 네 부분으로 대별할 수 있다. 여기에서 구수는 4음보를 1구로 계산한 것이며, 소수점 이하는 半句에 걸쳐 있는 경우이다.

- 
- 9) 보훈처 공훈전자사료관(<http://e-gonghun.mpva.go.kr>)의 독립유공자정보와 디지털안동문화대전(<http://andong.grandculture.net>)의 인물정보를 참조하여 김규현에 대해 적어보면 다음과 같다. 김규현은 대한제국기에 이강년 의진에 참여하여 의병 활동을 펼쳤다. 그리고 1921년에 의용단에 참여하여 군자금 모집 활동을 전개하였다. 1922년 4월에 도산면 옥계동의 이중면과 영덕의 박재인·박세찬 등에게 독립자금을 요구하다가 일본 경찰에 체포되어, 1923년 12월 22일에 대구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을 언도받고 옥고를 치렀다. 이후 1926년 9월 12일에 대구복심법원에서 재판에 항의하다가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0월형을 언도받고 다시 옥고를 치렀다. 1986년에 대통령표창이,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이 추서되었다.
- 10) 김규현의 부친에 대한 기록은 『의성김씨문충공파보 권하』에는 “聲煥 字明淑生乙卯九月十日--配 延安李氏父進士鉉懋生丙辰卒三月二十五日--”로, 『의성김씨대동보 권지삼』에는 “聲煥 字明淑生乙卯辛酉西九月十四日--配 延安李氏父進士鉉懋生丙辰忌三月二十五日--”로 되어 있다. 전자와 후자의 기록에 차이가 있는데, 전자의 기록에서 부친에 대한 일정 부분이 실수로 누락된 것으로 보인다. 이들 족보에 따르면 김규현의 부친은 신유년(1921년)에 사망했으므로 1923년에 면회를 올 수 없으며, 모친의 기일도 2일이 차이가 난다. 족보가 잘못 기재되었을 수도 있는 일이고, 아니면 작가가 부모의 나이 및 기일을 일부러 다르게 서술했을 수도 있는 일이다. 그리하여 아직도 김규현이 작가일 가능성은 남아 있다고 할 수 있다.

- 서사 : 중국 인물의 소회와 옥중타령(1~25구)
- 본사1 : 항일 투쟁의 생애와 투옥(26~141.5구)
- 본사2 : 계절의 변화에 따른 감옥생활과 서정(141.5~430구)
- 결사 : 자유의 갈망과 자살 결심(431~440구)

여기에서는 <옥중가>의 작품세계를 두 항목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서사와 본사1을 합쳐서 ‘1) 항일 투쟁의 생애와 투옥’으로, 본사2와 결사를 합쳐서 ‘2) 계절의 변화에 따른 감옥 생활과 서정’으로 살펴본다.

### 3.1. 항일 투쟁의 생애와 투옥

<옥중가>의 서사와 본사1의 서술단락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대단락	구수	소단락	구수
서사	1~25구	① 중국인물의 소회와 옥중타령	25
본사1: 항일 투쟁의 생애와 투옥	26 ~141.5구	② 항일 투쟁의 생애	32.5
		③ 1922년 체포	12.5
		④ 투옥	13
		⑤ 심문	14
		⑥ 단발	11.5
		⑦ 감옥 광경	11
		⑧ 감옥 규칙	13
		⑨ 감옥 음식	9

서사는 알 수 없는 1구에 이어 “○○○혜 괴기세로 천지망망 무가네라”로 시작한다. 이후 초패왕, 백이숙제, 한무제, 소자첨, 이태백, 도연명 등 여러 중국 인물의 ‘天地茫茫 無可奈’의 심정을 서술했다. 그리고 “그남아 허다쇼회 냇곡도라 재미없다 / 가쇼가비 천티만상 옥둥타령 에잇노라”라는 짧은 구절을 들어 자신의 사연을 펼치기 시작했다.

소단락 ②와 ③은 앞서 작가 추정에서 구절을 인용하여 자세히 살펴보았으며

로 여기에서는 생략한다.

한곳을 당도하니 고등계라 셋글자가 / 두렛이 싹엇고나 심심옥문 드러서서 / 좌우  
 비렬 살펴보니 의관인물 심수할뿐 / 성음돛차 토월이라 이력저력 칼총이오 / 와륙  
 좌륙 형구로다 의괴등등 푸린서슬 / 덕호잡는 형상이라 연연약질 이일신을 / 곱게  
 곱게 자랐더니 구지박지 오날날에 / 반분인들 사명잇나 철창철갑 물논이오 / 독쇄  
 향쇄 가류엇다 덜협납치 무엇이냐 / 정상열독 다더치고 지독차독 무형약벌 / 골덜  
 이 다녹는다 천쪽만쪽 썩진옷깃 / 혈흔이 반반하고 혼비백산 빈딩치난 / 누수에 잠  
 겨잇다 싱지사지 고만도라

위는 소단락④의 전문이다. 작가는 체포되어 고등계로 끌려갔다. 옥문에 들어서 살펴보니 좌우에 배열한 일인 경찰은 의관과 목소리가 모두 생소했으며, 서슬이 퍼런 것이 호랑이를 잡는 형상이었다. 일인 경찰이 찬 칼총과 널려 있는 형구는 “이력저력”, “와륙좌륙” 소리를 내어 공포감을 조성했다. 일제는 약질로 곱게 자란 작가의 사정을 봐줄 리는 어렵 반 푼 어치도 없어 철창의 철갑 속에 족쇄와 향쇄를 채워 가두니, 그야말로 節俠拉致와 같은 것이었다. 일제는 情狀을 闕讀하지도 않고 모진 고문을 해대니 작가의 골절이 다 녹을 정도였다. 천쪽만쪽으로 찌진 작가의 옷에는 핏자국이 얼룩졌으며, 고문에 혼비백산한 작가의 몸둥이가 감옥에 내쳐졌다[累囚]. 그리하여 작가는 자신의 생과 사를 도무지 알 수 없다[生之死之固莫圖]고 했다.

소단락⑤에서는 일제 경찰의 심문을 서술했다. 작가의 죄명은 “딛흘공사(?) 치안방허”였다. 일제 경찰의 심문은 일제 경찰과 작가 사이에 오고간 문답을 그대로 적은 문답체 형식으로 서술했다. 그런데 이 부분의 서술은 실제로 오고간 말을 그대로 적은 것은 아니고, 작가가 그것들을 정리하여 은유적으로 서술한 것으로 보인다. 묻고 답하는 내용을 구분하기가 쉽지는 않은데,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가) 십직경영 직업업서 불고가사 바로하라 / 별간예를 다하니보 강산인물 류람히지  
 나) 오미불망 존쥬의리 노련명을 싱각히지 / 도동희의 절기업서

- 다) 지백지신 뒤를따라 복어교호 씨를히지 / 칠신위죄 아니거든 복교형직 못엇신고  
 라) 손빈갓흔 황홀수단 마릉씩서 분병히지 / 일기복명 준비업서 빙이서지 만무하다  
 마) 박낭사등 비밀게교 창희역스 보로갓지 / 반근철퇴 업는형장 역스본들 무엇하나  
 바) 혼상무의 음모로서 도말등단 권히엇지 / 척비업는 빈두먹이 무얼주어 권할손가

가)에서 일제는 십년이나 직업도 없이 가사를 돌보지도 았으면서 무엇을 했는지를 물었다. 그러자 작가는 별 간섭을 다한다, 그저 강산인물을 구경했다고 답변했다. 나)에서는 답변의 2음보가 유실된 것으로 보는 편이 좋을 듯하다. 일제는 魯連名[魯仲連]처럼 오매불망 尊主 의리를 생각하지 았았느냐고 물었다. 그러자 작가는 진나라가 칭제한다면 동해에 빠져 죽을 것이라고 한 노중련의 절개[到東海의 節概]는 았다고 답변했다. 다)에서 일제는 智伯의 신하였던 豫讓을 본받아 다리 아래 숨어[伏於橋下] 복수를 꿈꾸지 았았느냐고 물었다. 그러자 작가는 해골에 옷칠을 한 죄[漆身爲罪]도 아닌데 伏橋 행각이라니 무슨 말이냐고 반문했다<sup>11)</sup>.

라)에서 일제는 馬稜에서 백서를 쓴 손빈처럼 수단을 부린 것이 아니냐고 물었다. 그러자 작가는 일개 초아의 선비로 임금께 復命할 준비도 았는 사람이라 백서를 쓴 적이 았다고 답변했다. 마)에서 일제는 박낭사에서 진시황을 습격했던 滄海力士를 보러 가지 았았느냐고 물었다. 그러자 작가는 반근 철퇴도 았는 데 力士를 만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고 답변했다. 바)에서 일제는 혼상무(?)가 조말에게 단에 올라가 비수로 환공을 죽이라고[曹沫登壇] 한 것처럼 음모를 꾸미지 았았느냐고 물었다. 그러자 작가는 찌를 칼[刺匕]도 았는 빈주먹인데 무엇을 주어 권하겠느냐고 답변했다.<sup>12)</sup>

11) “노련명을 칭각히지 / 도동희의 절기업서”는 제나라 사람 노중련과 관련한다. 노중련이 趙나라에 머무를 적에 위나라에서 진나라 왕을 황제로 추대하여 조나라에 있던 진나라의 군대를 철수시키려 하자 노중련이 평원군에게 진나라가 칭제한다면 자신은 동해에 빠져 죽을 것이라고 하여 중지시켰다. ; “지백지신 뒤를따라 복어교호 씨를히지 / 칠신위죄 아니거든”은 智伯之臣 豫讓과 관련한다. 趙襄子가 지백의 해골에 옷칠을 하여 물을 마시는 그릇으로 사용했다(漆智伯之頭爲器). 이에 예양이 복수하고자 다리 아래 숨어 있었는데(伏於橋下), 양자가 이르자 말이 놀라기를 수색을 하여 예양을 붙잡아 죽였다. 여기서 “漆身爲罪”는 “漆身爲器”를 염두에 두고 쓴 말이다.

12) “손빈갓흔 황홀수단 마릉씩서 분병히지 / 일기복명 준비업서 빙이서지 만무하다”는 탁월한 군

일제 경찰은 그 동안 일어났던 독립운동과 관련한 사건과 작가를 엮기 위해 사건을 하나하나 거론해 가며 작가를 심문했던 것 같다. 그리고 이에 대해 작가는 자신은 그런 활동을 할 인물이 못된다는 식으로 계속해서 발뺌을 하는 답변을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작가는 독립운동과 관련한 사건을 주로 주군을 위해 원수를 갚거나 폭군에 저항한 중국 고사로 은유하여 서술했다. 이러한 은유적인 표현은 일제에 항거하여 벌인 독립운동의 현장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으려 한 작가의 의도가 작용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소단락⑥에서는 단발할 때의 서정을 서술했다. “이이부모 구로지탁[哀哀父母 劬勞之澤]”으로 얻은 머리카락은 한 터럭이라도 소중한데 무슨 일로 단발하는 지경에 이르렀는지를 俯仰天地하며 호소하고 非僧非俗이 된 자신이 가련하다고 했다.<sup>13)</sup> 소단락⑦에서는 감옥방을 서술했다. 아무 것도 보이지 않는 캄캄한 밤중에 봉사처럼 걸어 여러 겹의 문으로 둘러친 천간 집에 이르니 마치 염라국과 같았다. 여러 개 열쇠를 푸니 검은 삼작문이 털격하며 열렸는데, 캄캄 지옥의 감옥이 실감났다. 서너 컷 크기의 빈 우리는 상하사방이 판목으로 되어 있었고, 이틀 저름으로 들어온 바람은 怒氣를 띄었으며, 여기저기 쇠광창에는 서리꽃이 피어 있었다. 인간 자취가 없어 그림자도 드리우지 않았으며, 뚝뚝 흐른 피 흔적이 먼지 속에 어리어 있었다. 寢席과 금침 한 개가 각각 중간과 동쪽 벽에 놓여

---

사이론과 실천으로 유명한 제나라 孫臏과 관련한다. 손빈이 위나라 군대를 마름에서 매복하여서 무찔렀다. 이때 ‘방연이 이 나무 아래에서 죽는다’라고 큰 나무에 써 놓았다. ; “박낭사동 비밀게교 창희역스 보로갓지 / 반근철퇴 업는힝장”은 진시황을 박랑사에서 습격하였던 滄海力士와 관련한다. 강릉 남대천에 큰 두레박이 떠내려가는 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건져다가 열어 보니 얼굴이 검은 한 아이가 있었는데, 그 아이가 곧 창해역사이다. 창해역사는 힘이 천하장사였는데, 장자방이 진시황을 제거하려고 천하를 두루 다니며 힘센 사람을 찾다가, 강릉에 이르러 창해역사를 만나 진시황을 없애 달라고 당부를 했다. 창해역사는 천근짜리 철퇴를 들고 진시황이 행차하는 길목에 숨어 있다가 진시황이 탄 가장 화려한 수레를 공격하였는데, 진시황은 다른 수레에 타고 있었기에 죽음을 모면하였다. ; “훈상무의 음모로서 도말등단 권훤엇지”는 제나라 환공 및 조말과 관련한다. 제나라 환공이 노나라를 쳤는데 노나라 장공이 화평을 청하자 허락했다. 노나라 장공이 맹세를 하려 하자 노나라 장군 조말이 단 위로 올라가 비수로 환공을 협박했다. 조말의 말을 들은 이후 환공은 판중의 중재로 조말을 살려주고 노나라의 땅을 돌려주었다. 이 소식을 들은 제후들은 더욱 제나라에 의지하려고 하였다.

13) “이이부모 구로지탁”은 『시경』 小雅편 <蓼莪>에 나오는 “哀哀父母生我劬勞(슬프도다 우리 부모 날 낳고 고생 많으셨지)”라는 구절에서 따온 것이다.

있었으며, 슈승비승(?) 목통 안에는 표주박 하나가 떠 있었다고 했다. 작가가 보이는데로 자세히 감옥방을 묘사했으므로 생동감 있는 표현을 이루었다.

소단락⑧에서는 통제 일변도인 감옥의 규칙을 서술했다. 두서너 장으로 된 규칙 책은 자유와 권리를 모두 없앤 것으로 규칙을 어길 시에는 依律施行한다고 했다. “시미갓흔 감독간수”는 “방난창에 붙혀서서 눈한번만 자춘하면 벼락불이” 내려졌다. “호흡간에(?)” 앉았다가 들키면 큰일나고, 기침소리라도 내면 괴상한 운동체조를 시켰다고 했다. 소단락⑨에서는 감옥의 음식을 서술했다. 돌이 섞인 太半粟半을 半生半熟하여 두어 덩이 주는데, 따뜻한 기운[煙火氣]은 전혀 없고 얼음 갈기가 어려 있었다. 飢渴이 甘食으로 먹으니, 지금 먹는 음식에 비하면 예전에 양살 피우며 먹던 보잘 것 없는 음식[麥飯葱湯]은 최고의 음식[善美]이었다. 흉노에 붙잡혀 살던 소식[十年窩窟 蘇中郎]은 방석 털[毛氈]이라도 먹었지만, 이곳에는 牛馬도 꺼리는 털기 없는 방석밖에 없다고 한탄했다.<sup>14)</sup>

### 3.2. 계절의 순환에 따른 감옥 생활과 서정

<옥중가>의 본사<sup>2</sup>와 결사의 서술단락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대단락	구수	소단락	구수
본사 <sup>2</sup> : 계절의 순환에 따른 감옥 생활과 서정	141.5 ~430구	⑩ 첫겨울의 추위	9
		⑪ 除夜の 서정	31.5
		⑫ 설날의 서정과 臥病	23
		⑬ 暮春의 서정	28
		⑭ 모친 생각	13.5
		⑮ 부친 생각	22
		⑯ 단오날의 서정	6
		⑰ 三伏炎蒸의 서정	11

14) “릭반총탕 양상의 이데싱각 선미런가”에서 麥飯葱湯은 보리밥에 팥국이라는 뜻으로, 보잘것 없는 음식을 이르는 말이다. “양상의”는 “양살”인 것 같다. 양살은 업살을 부리며 버티고 겨루는 것으로 ‘양살을 부린다’나 ‘양살 피우다’ 등으로 쓴다. ; “십년와굴 소등냥은 모던이나 먹어 건만”은 蘇中郎 즉 蘇武과 관련한다. 한나라 소식은 흉노에 붙잡혀 굴욕을 받아 가면서도 절조를 굽히지 않았는데, 그는 굽을 적에 毛氈(방석 털)을 삼켰다고 한다.

		⑱ 가을날의 서정	64.5
		⑲ 간수 비판	12
		⑳ 부친의 면회	8
		㉑ 공진회의 관람패	38
		㉒ 再逢春의 서정	13
		㉓ 강제 處役	10
결사	431~440구	㉔ 자유의 갈망과 자살 암시	10

소단락⑩에서는 감옥에 들어가 맞이한 첫겨울의 추위를 서술했다. ‘삭풍은 늠늠하고 일월정기가 칼 같아 살기가 肅肅한 추위에 ‘머리맡의 온도계(“한난계”)는 다만 5~6도에 넘나들었다. ‘먹빛의 시뻘건 手足은 脈조차도 얼음’이어서 ‘千思萬慮 懷萬念’을 해봐도 生佛로 있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

놀랍고나 별안간에 사면비풍 이러날데 / 노리소리 우름소리 옥등을 뒤집는다 / 인등자는 승천이라 빅단금지 슈업고나 / 계명산 추야월에 당자방의 녀이완나 / 팔천 덩병 슬픈노리 사향곡이 훗터진다 / 연도간이 이곳인가 비가강기 흡사하다 / 완덕의 창광인가 궁도우름 분명코나 / 고덤이의 통곡인가 방약무인 엇진일고 / 추연정금 다시안자 여원여소 드러보니 / 알겠구나 오날이야 구시덕의 데석이라 / 어엿뿌다 더청연들 디명일월 뉘던튼고 / 구절간장 이닉소회 풍천지각 일반일세 / 허희성을 높히마소 독방사람 사람죽닉 / 구만장천 문어져도 소설길이 인난이라 / 비지무익 다버리고 과세편안 흐사이다

위는 除夜의 서정을 서술한 소단락⑪의 전반부이다. 별안간 노래소리와 울음소리가 감옥을 가득 채우는데, 많은 사람이 모두 부르니 간수의 백단금지도 소용이 없었다[人衆者勝天]. 그 울음은 張子房의 녀이 온 것인지 팔천정병이 불렀던 사향곡의 悲歌慷慨와도 같고, 阮籍이 멋대로 행동하며[猖狂] 벌인 ‘窮途우름’과도 같고, 高漸離의 傍若無人한 통곡과도 같았다<sup>15)</sup>. 옷깃을 여미고 고쳐 앉아

15) ‘人衆者勝天’은 사람이 힘을 모으면 하늘을 이길 수 있다는 뜻이다. ; “당자방의 녀이완나 팔천 덩병 슬픈노리 사향곡이 훗터진다 연도간이 이곳인가 비가강기 흡사하다”는 한나라 건국공신 張子房(張良)이 계명산에 높이 올라 옥통소를 불고 한나라 군사가 사향곡을 부르니 사면에 조나라 노래가 들렸다는 고사를 말한다. 여기서 “연도간”은 연(燕)나라와 조(趙)나라 사이를 말한

[湫然正襟] 들어본 작가는 그제서야 그 소리가 ‘구시대의 除夕’을 맞아 청년들이 부르짖는 ‘如怨如訴’의 소리임을 알게 되었다. 작가는 청년들을 향해 독방에 갇힌 자신이 그 소리에 간장이 끊어져 죽을 지도 모르니 ‘흐느끼는 소리[歔歔聲]’를 너무 내지 말라고 부탁했다. 그리고 구만리 장천이 무너져도 솟아날 길이 있으니 非智無益한 짓은 그만하고 過歲를 편안하게 하자고 했다. 작가는 청년들의 집단적인 노래와 울음을 ‘非智無益’이라고 나무라긴 했지만, 내심 우리의 명절에 간수의 금지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일제에 집단적으로 저항하는 청년들의 피끓는 심정에 공감을 표하고 있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위의 구절 이후에 작가는 ‘寢牀悲懷’로 송궁문과 축귀경을 외우며 잠을 이루지 못했다고 했다.

소단락⑫에서는 설날의 서정과 臥病을 서술했다. 설날 아침에 작가는 문중인이 모여 즐기는 고향 광경을 떠올렸다. 고향을 그리는 마음에 작가는 가슴에 ‘痞鬱腔腸’의 불덩어리가 치밀어 올라 ‘被髮佯狂’으로 기입일을 누어만 있었다. 그런데 자신의 ‘鬱鬱心思’에는 신설의생이 처방한 가루약이 듣지 않아 냉수만도 못하다고 했다. 소단락⑬에서는 暮春의 서정을 서술했다. 날아가는 제비에게 화산 고향으로 날아가 옥중 소식을 전해달라고 하고, 고향에서 소식조차 끊어진 현실을 슬퍼했다. 그러던 중 그리운 형제[同氣連枝]로부터 편지가 왔는데, ‘옥누 소식’이었다. 작가는 친척들의 정다운 이야기[悅親戚之情話]를 담은 ‘千絲萬縷’의 편지글[紙上繡作]을 기대했는데, ‘동상화촉 냇마을에 고어우름(?)’의 소식을 담은 편지글이 날아왔으므로 낙담을 하고 말았다. 여기서 작가의 형제도 독립운동을 한 일로 투옥된 것이 아닐까 추정해 볼 수 있다.

소단락⑭에서는 3월 27일에 기일을 맞은 모친[愛我母氏 永慕之身]을 생각했

다. ; “완덕의 창광인가 궁도우름 분명코나”는 삼국시대 위나라 말의 시인인 阮籍과 관련한다. 완적이 술을 마시며 ‘가슴에 불덩어리가 있어서 술을 부어야 한다고 했으며, 술에 취하여 길이 뚫린 대로 따라가다가 길이 다 되면 통곡하며[窮途우름] 되돌아왔다고 한다. ; “고담이의 통곡인가 방약무인 옛진일고”는 진시황을 살해하려 했으나 실패한 荊軻와 관련한다. 형가는 언나라로 와서 두 사람의 친구를 얻었다. 한 사람은 高漸離라는 ‘축[築]’의 명수이고 또 한사람은 宋意라는 자였다. 형가는 이 두 사람의 친구와 연의 시장에서 함께 술을 마시고 함께 노래를 불렀다. 술과 노래를 즐기는가 하면 갑자기 큰 소리를 내어 우는 때도 있었다. 웃는 소리도 우는 소리도 세 사람이 목소리를 함께 내었다. 그야말로 주위의 시선을 아랑곳하지 않는 ‘傍若無人’의 태도였다. 얼마 후 그는 진(秦)나라 정(政) : 뒷날의 진시황을 암살하려 했으나 불행하게도 일은 실패로 끝났다.

다<sup>16</sup>). 오랫동안 집을 떠나 외지에서 모친의 기일을 맞이했지만, 옥중에 있는 지금 하늘에까지 닿는 슬픔과 아픔이 더욱더 몸에 사무쳐[益附與身 窮天之慳], 심장을 칼로 도려내는[匕去心臟] 아픔보다 천백 배는 더 했다. 알뜰살뜰[恩斯勤斯] 기르신[顧我腹我] 은혜와 귀하게 복록을 누리며 살라고 축수한 모친의 뜻을 생각하며 만 번 죽어도 아깝지 않을 만큼 자신의 죄가 무겁다[萬死無惜]고 한탄했다. 이어 소단락<sup>15</sup>에서는 4월 30일에 70세 생신을 맞는 부친[七耄高堂 弧辰]을 생각했다. 하나님께 부친의 만수강영을 빌고, 잠시 앉은 채로 잠이 들어 꿈에서 친척들이 모인 가운데 잔치를 벌이는 북당의 광경을 서술했다.<sup>17</sup>

소단락<sup>16</sup>에서는 단오날의 서정을 짧게 서술했다. 작가는 그네를 타며 떠들고 즐기는 소년들의 소리가 듣기 싫다고 했다. 그네를 타면서 이렇게 떠들썩한데 ‘해외풍조인 비행기를 탄다면 안하무인이 될 거라고 하면서, ‘남의 속도 참 모른다’고 했다. 소단락<sup>17</sup>에서는 여름날의 서정을 서술했다. 삼복염증에 겨울에 입던 청당삼을 입으니 발광이 날 지경이고[東帶發狂欲大叫], 만국이 홍로 중에 있는 것과 같고[萬國如在紅爐中], 바람이 부는 북창에서 회황 시절 사람이라 자랑할 때 햇볕이 작열하는 이 상황을 꿈에도 생각지 못했다고 했다. 그리고 작가는 “부상”들을 향해 “한진서퇴[寒進暑退]”하는 순환이 거듭되니[循環度數] 순식간에 더위가 물러날 것이라고 위로했다. 말 그대로 더위를 참고 견디자는 뜻이기도 하지만, 자신 스스로와 감방 동료들에게 참고 견디면 일제의 압제가 풀릴 것이라는 희망을 주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sup>18</sup>

16) 필자는 소단락<sup>14</sup>를 모친의 기일을 맞이한 작가의 서정으로 해석했다. “이아모씨 영모지신 이 십칠일 쯔와오나 / 원수로다 이일월아 어이리 지로오나 / 익부여신 궁천지강 비거심장 천빅 비라 / 역역던진 기럼하니 툄툄간당 쓴어진다”에서 밑줄 친 “영모지신”은 ‘永慕之身’과 ‘令母[慈堂과 같은 말]-辰’으로 한자화가 가능하다. 전자일 경우 모친의 기일이 되고, 후자의 경우 모친의 생신이 된다. 그런데 위에 인용한 구절에서 드러나듯이 작가는 이 날을 비통해하고 있고, “기럼하니”는 “기럼[忌廟]하니”로 한자화할 수 있어 모친의 기일로 보는 것이 더 합당할 것으로 보인다.

17) “고아복아 기로실티 은스근스 이름말슴”에서 ‘顧我腹我(어머니 배 속에서 열 달 동안 애를 쓰시고)’는 『시경』소아편 <蓼莪>에 나오는 구절이다. ‘恩斯勤斯(알뜰살뜰 길러냄)’는 『시경』빈풍 <鸛鳴>에 나오는 구절이다. ; “칠절고당 호신이라”에서 弧辰은 남자의 생일로 예전에 아들을 낳으면 문 왼쪽에 나무로 만든 활을 걸어놓은 데에서 유래한다.

18) “속디발광 육디규난 나를위히 이름이라”에서 ‘東帶發狂欲大叫’는 두보의 <早秋高熱>에 나오는 구절로 무더운 여름날 의관을 정제하고 앉아 있으려니 발광이 날 지경이어서 썩 소리라도

소단락⑱에서는 가을날의 서정을 장장 60여구에 걸쳐 서술했다. 칠석날의 간단한 서정 이후에 “오호오호 부오회라”를 중간중간 반복하면서 중국 고사를 지속적으로 인용하여 가을날의 슬픈 정조를 서술했다. 그러한 가운데 “영단고국 [永斷故國] 가을왔네”에서 나라의 상황을 자각하고, “괴롭고나 시일이여 炎陽번티 괴롭고나 / 시일은 갈상인고 여급여로 히망인가[時日曷喪 予及汝偕亡]”에서는 일제가 점령한 당시의 시국이 망해버렸으면 좋겠다는 심정을 은유적으로 표현했다. 그리고 “식흔덤에 봉천형은 / 널가자고 고등트며”에서는 자유롭게 만주로 가서 독립운동을 하고 싶은 마음을 드러내기도 했다. “사덩업시 가는청춘 / 나를위히 지체킨나 / 시호시호 부지티라 활동시그 느더간다”에서는 “금쪽갓치 귀훈광음”에 “철창”에서 헛되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자신을 한탄했다. 그리고 달을 보며 『시경』, 백거이, 두보의 시 구절을 인용하여 멀리 있는 고향의 부친과 처자를 그리워하고, 시름에 젖은 자신의 서정을 서술했다.<sup>19)</sup>

소단락⑲에서는 간수의 퍽박을 서술했다. 새소리를 듣고 울고 있는데, 간수의 벼락같은 엄금이 내려졌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雨過風過”를 겪는 고통이 가해졌다. 그리하여 작가는 간수에게 賊人之惡을 하지 말라고 하고, 모든 일은 분수가 이미 정해져 있고[時來風送騰王閣 運退雷轟薦福碑] 나쁜 마음이 가득 차면 하늘이 반드시 벌을 내릴 것이라[惡鐘若滿 天必誅之]고 훈계했다.<sup>20)</sup>

지르고 싶다는 뜻이다. ; “만국도죄 흉노등은 이시티를 이룸인가”에서 ‘만국도죄 흉노등’은 王觀의 <苦熱行>에 나오는 구절인 ‘萬國如在紅爐中(만국이 벌건 화로 가운데 있는 것 같다)’의 와전이다. ; “청풍석일 북창헌에 회황인을 자랑할데 영양금일 이상티를 몽등으로 싱가희소”에서 義皇人은 중국 고대의 전설상의 임금인 회황씨 적 사람을 말하는 것으로 세살일을 잊고 한가로이 지내는 사람을 비유하기도 한다. “영양금일”은 ‘永陽今日’로 보이는데 ‘멈출 것 같지 않은 햇별이 내리 쬐는 오늘’이라는 뜻이다. ; “순환도수[循環度數]”는 순환이 거듭하는 횟수를 뜻한다.

19) “時日曷喪 予及汝偕亡(이런 날은 언제 없어질 것인가. 우리는 너와 함께 망해버렸으면 좋겠다)”는 『孟子』에 나오는 구절이다. 이 구절에서 ‘日’은 임금을 상징하는 것으로 백성이 임금의 통치를 싫어하여 한 말이다. ; 달을 보며 서술한 구절 중에 “피미인히 서방지인(彼美人兮 西方知人(저 미인이시여 서방의 미인이로다))”은 『시경』 패풍 <簡兮>에 나오는 구절이다. “척피헌헤 첨망헌던 빅슈돈안 어나곳고[陟彼岵兮瞻望父(저 산에 올라 아버지 계신 곳을 바라보니)]”는 『시경』 <陟岵>에 나오는 구절이다. “쑤슈오산[楚水吳山] 김푼오에”는 백거이의 <江南送北客因憑寄徐州兄弟書>에 나오는 구절이다. “각간쳐즈 슈호직오[卻看妻子愁何在(돌아가 처자를 만나면 무슨 걱정일까)]”는 杜甫의 <聞官軍收河南河北>에 나오는 구절이다.

20) “시리푼송 등왕각과 우퇴뢰굉 천북비라[時來風送騰王閣 運退雷轟薦福碑]”는 『명심보감』에 나

사풍세우 석양전에 북년소식 놀납고나 / 부자천륜 지동하야 사지심봉 와셋다네 /  
 형연칠십 무슨기력 불원천리 어이시고 / 엄엄존안 더빅발이 날노만연 빅발이라 /  
 빅발다시 못푸르니 속죄무로 어이릿고 / 독지못한 원수목숨 옥급부형 죄로이다 /  
 천참만스 당당죄벌 천로무심 헛시럽다 / 함누무어 도라서니 흥노유체 아닐소가

위는 소단락㉔의 전문으로 부친의 면회를 서술했다. 바람이 치고 가는 비가 오는[斜風細雨] 저녁 무렵에 놀랍게도 이 ‘死地’에 ‘북에서부터[北來]’ 부친께서 면회를 오셨다. 대구에서 볼 때 안동은 북쪽에 있으므로 ‘北來’라고 했다. 칠십의 나이에 기력도 없는데 감옥까지 불원천리하고 오신 부친은 엄하면서도 백발이 만연했다. 부친의 모습을 본 작가는 죽지도 못하고 부모에게까지 욕되게 한[辱及父兄] 자신의 죄를 속죄할 길이 없었다. 그리고 천 번 참회하고 만 번 생각해 도[千懺萬思] 자신의 죄와 벌은 마땅한 것인데, “천로무심(?)<sup>21)</sup> 헛시럽다”고 했다. 부친은 말없이 눈물을 참으며[含淚無語] 돌아서 가시는데, 아마도 가시는 길에 눈물을 흘리실 것[行路流涕]이라고 했다.

소단락㉔에서는 공진회의 관람패에 대해 서술했다. 구월 구일이 되었는데 밖에 쇠북소리, 대포소리, 기차·마차·자동차 소리가 시끄러웠다. 작가는 처음엔 천병만마가 쳐들어온 줄 알고 감옥부터 부수고 한시바빠 자신을 죽여주기를 소원했다. 그러나 반갑지 않은 웃음소리가 들려서보니 共進會의 관람패가 감옥관람을 온 것이었다. 여기서 말한 공진회는 1923년에 대구에서 개최한 전국특산물 진열회를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sup>22)</sup>. 감옥 근처에서 이 共進會가 열려 떠들썩한 소리가 들렸던 것이고, 공진회에서 감옥을 관람하는 행사를 기획했던 것으로 보인다.

오는 구절이다. 때가 이르니 바람이 등왕각으로 보내고 운이 없으니 벼락이 천복비를 때렸다는 것으로 모든 일은 분수가 이미 정하여져 있는데 세상 사람들이 부질없이 스스로 바쁘게 움직인다는 뜻이다. ; “악관이 약만하면 천필주지 헛나나라惡羅若滿 天必誅之”는 『명심보감』에 나오는 구절이다. 나쁜 마음이 가득 차면 하늘이 반드시 벌을 준다는 뜻이다.

21) “천로무심”은 정확한 뜻을 알지 못했다. ‘천로’는 天路(천당으로 가는 길), 天怒(하늘의 노함), 淺露(얕아서 감추어지지 아니하고 걸로 드러남), 泉路(사람이 죽어서 가는 저승길) 등으로 한자화할 수 있다. ‘天怒’가 ‘무심’과 연결할 때 문맥적으로 가장 가깝다고 할 수 있지만 매끄럽지 못한 것은 사실이다.

22) 요시미 순야, 이태문 옮김, 『박람회 근대의 시선』, 논형, 2004, 319~321쪽.

감옥관람 다해거든 감옥정도 말쭙하게 / 이문안을 들어서서 범연갓다 한단말가 /  
 정신차려 살펴보면 초목상심 되오리라 / 금수강산 삼철이에 방방곡곡 구치감에 /  
 신성민족 이천만이 나나나니 미결수라 / 와신상담 못하렷들 활발기상 고이하다 /  
 무사통곡 못하렷들 녁덕우슴 무삼일고 / 열국문명 도회지에 굿보이로 다니는가 /  
 안방구석 안자스면 소사각각 귀골이라 / 천인이목 너무말고 지남지북 호터가소 /  
 무군태평 일부지를 알고보니 너의배라 / 영합산이 유망해여 여불인위 차태로다

위에서 알 수 있듯이 작가는 관람패를 굿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았다. 관람패 가운데 감옥 안을 보고 ‘변뇌를 떠난 깨끗한 자리[梵窟]라고 한 사람이 있었던 모양이다. 작가는 정신을 차리고 보면 첫눈에 마음이 상할 것[初目傷心]이라고 하며 불쾌해 했다. 그리고 우리나라 방방곡곡이 구치감이고 우리 민족 이천만인이 모두 미결수인데, 와신상담이나 무사통곡[無死痛哭]은 못할망정 활발한 기상으로 ‘냅덕웃음’이나 웃고 있다고 이들을 꼬집었다. 한편 관람패 중에는 여성도 있었던 모양이다. 작가는 여성들이 열국문명 도회지에 굿을 보이러 다닌다고 하면서, 안방구석에 앉아 있으면 모두[召史各各]가 귀골일 것이니 감혀 있는 사람의 이목[遷人耳目]을 끌지 말고 흩어지라고 했다. 말세의 징조 중 첫 번째로 말하는 ‘나라가 없어도 태평하다[無君太平 一不知]’는 바로 너희 관람패를 두고 말하는 것이니, ‘물에 빠져 죽을 망정, 차마 이런 꼴을 참을 수 없다[寧溘死以流亡兮 余不忍爲此態也]’고 한탄했다.<sup>23)</sup>

소단락㉔에서는 再逢春의 서정을 서술했다. 세월이 유수같이 흘러 시월, 양역설, 그리고 신년을 지나 다시 봄을 맞이했다. 작가는 봄을 맞이하여 ‘천고역사를 지닌 우리고국의運氣가大吉’로 돌아서 ‘그 운명이 새롭게 되면[其命維新]’, 자신도 살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리고 일제를 “이늬들라”라고 부르며 “權不十年”을 부르짖고 자신은 “안진뱅이 용맹”으로라도 ‘切齒腐心’하며 지내겠다고 다

23) “무사통곡[無死痛哭]은 누가 죽지도 않았는데 통곡한다는 뜻이다. ; 소사[召史]는 良家の 아내를 말한다. ; “천인이목[遷人耳目]에서 ‘遷人’은 귀양살이를 하는 사람을 의미하며, 여기서는 감옥에 갇힌 사람을 말한다. ; “무군태평 일부지[無君太平 一不知]는 난세의 징조로 이야기되는 ‘八不知’의 첫 번째를 말한다. ; “영합산이 유망해여 여불인위 차태로다”는 屈原의 <離騷>에 나오는 “寧溘死以流亡兮 余不忍爲此態也(차라리 물에 빠져 흘러 없어질망정, 내가 차마 이런 꼴을 참을 수 있으랴)”라는 구절을 말한다.

집했다. 이렇게 봄을 맞아 작가가 나라의 운명에 희망을 품고 자신을 다잡았지만, 작가는 강제 처역을 당해 다시 낙담하고 마는데, 그것을 소단락㉓에서 서술했다. 일제는 “공판인지 농판인지 강제처역”을 집행했는데, “놀고먹어 못쓴다고 직조공장”으로 입학(?)을 시킨 것이었다. 그리하여 작가는 종일 벼물에 서서 고통스러운 노동에 종사하게 되었음을 서술했다.

병반부터 나갈지면 오날부터 결심있다 / 압제인들 고만되고 험한지방 너머서서 /  
 사통오달 너른길로 자유활발 거러볼래 / 일지표락 곤오앗치 농서쌍이 본일너라 /  
 나는가네 나는가네 낙엽귀근 돌라갈래 / 반도강산 잘잇거라 북망산천 수이보자 /  
 너을두고 내가간들 부모국을 영갈손가 / 철이동풍 다시부려 무궁화 꽃치필씩 /  
 노류장화 썩거귀고 화풍가무 도라와서 / 그날몽사 이러이러 일소장음 하오리라

위는 <옥중가>의 마지막인 소단락㉔의 전문이다. 이 가사를 쓴 날에 작가는 결심 하나를 했다. 오늘 강제 노동을 위해 丙班부터 옥문을 나가게 되면 사통오달 넓은 길로 자유롭게 걸어가 “압제인”이 되는 것을 그만 두겠다는 것이다. 작가의 이 결심은 탈옥, 즉 자살을 의미한다. 작가가 탈옥하여 죽음을 택하려 한 것은 “나는가네 나는가네 낙엽귀근 돌라갈래 / 반도강산 잘잇거라 북망산천 수이보자”에서도 확연히 드러난다. 낙엽이 썩어 땅으로 돌아가듯이 자신도 땅으로 돌아가고 ‘北邙山川’을 보겠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작가는 마지막으로 반도강산에게 잘 있으라고 하며 그렇다고 자신이 부모국을 영영 떠나는 것은 아니고 독립이 되는 날에 다시 와서 화풍가무하고 일소장음을 하며 즐기겠다는 것으로 끝을 맺었다. 여기서 작가는 ‘자유가 없는 압제인’의 처지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탈옥 밖에 길이 없다고 극단적으로 판단하고 있다. 그만큼 작가는 일제가 강점한 이 현실에서 살 수가 없다는 심정, 즉 독립된 조국에서 살기를 희구하는 심정을 절실하게 서술하고 있는 것이다.

#### 4. <옥중가>의 가사문학사적 의의

<옥중가>의 작품세계는 작가의 감옥 생활과 그에 따른 서정이 중심을 이룬다. 작가는 자신의 출생과 성장, 개화기의 도래, 의병 활동, 을사조약과 경술국치, 독립운동가로서의 생활, 체포, 투옥, 감옥의 이모저모, 첫겨울부터 다다음해 봄까지의 생활과 서정 등 철저하게 시간적 순서를 밟아가며 내용을 서술해나갔다. 이러한 체계적인 서술구조에서 작가가 매우 공을 들여 <옥중가>를 서술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옥중가>는 매우 집약적이고 생동감 있는 표현을 이루는데, 그것은 다채로운 문체를 통해 구현되었다. 보통 4자 4음보 연속의 기계적인 형식을 지닌 가사 작품은 비교적 단조로운 문체를 구성한다. 반면 <옥중가>는 완벽하게는 아니지만 거의 4자 4음보 연속의 형식을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우 다채로운 문체를 구성하고 있다. <옥중가>의 다채로운 문체를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다.

<옥중가>의 문체에서 가장 특징적으로 드러나는 점은 중국 한시, 중국 고사, 한자어 등을 많이 인용하여 고어체 문체를 이루고 있다는 것이다. <옥중가>는 작품 전체에 걸쳐 “형인임발 우기봉에 우기봉이 더디든가[行人臨發又開封]”에서와 같은 중국 한시, “희쇼답낙 들어안저 화봉인[華封人]의 특스[祝辭]로셔”에서와 같은 중국 고사, “스불범덩[邪不犯正]” 및 “성광즈절[成狂自絕]”과 같은 한자어 등이 난무하다시피 한다<sup>24)</sup>. 특히 <옥중가>는 한글 필사본만 전하는 상황에서 『시경』, 이백, 두보, 장적, 소동파, 주희 등의 시 구절을 많이 인용함으로써 한시를 전공한 연구자조차도 가사를 읽어 내려가면서 즉시 그 내용을 이해하기가 힘들 정도이다. 그리고 감옥에 갇혀 막막한 심정, 제야에 청년들의 울음소리를 들은 심정, 누구한테서도 소식이 없을 때의 심정, 가을날의 슬픈 심정 등을

24) “형인임발 우기봉[行人臨發又開封]”은 張籍의 <秋思>에 나오는 구절이다. ; “화봉인[華封人]의 특스[祝辭]로셔”는 국경지방인 화 땅을 지키는 사람, 즉 화봉인이 요임금에게 와서 壽, 富, 多男子의 세 가지를 축수(祝手)한 것을 말한다. ; “스불범덩[邪不犯正]”은 바르지 못하고 요사스러운 것이 바른 것을 건드리지 못한다는 것으로 정의가 반드시 이긴다는 말이다. ; “성광즈절[成狂自絕]”은 미쳐서 스스로 죽는다는 뜻이다.

서술하는 부분에서는 ‘부분적 장면의 확대’처럼 중국 고사를 계속 나열하며 시상을 전개해나갔다. 이렇게 작가는 자신의 한학적인 지식을 총동원하여 가사의 내용을 표현하는데 매우 공을 들임으로써 결과적으로 <옥중가>는 현대인이 파악하기 힘든 고어체 문체를 이루게 되었다.

그리고 <옥중가>에서 작가는 은유적 표현도 자주 사용했다. “경술년 칠월장마 방방곡곡 홍수로다”, “평슈상봉 짝을지어 / 디동강상 선유흔후 혼강으로 놀어들어” 등에서 알 수 있듯이 작가는 벌어진 일을 짐작케 하는 최소한의 사실은 적되 나머지는 은유적으로 표현했다. 그런데 이러한 은유적 표현은 대부분 중국의 고사나 시를 인용하는 수법으로 이루어졌는데, 이러한 점은 일제 경찰과 작가와의 사이에 오고간 물음과 답변에서 가장 잘 드러난다. 작가는 고향의 가족도 버리고 일제에 저항하며 살아오다가 체포된 독립운동가였다. <옥중가>에서 은유적 표현이 자주 등장하는 것은 독립운동가 특유의 비밀스러운 삶이 작동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한편 <옥중가>의 표현은 짧은 구절에 많은 의미를 담은 매우 집약적인 표현을 이루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집약적인 표현성은 중국 한시, 중국 고사, 한자어 등을 인용한 서술이나 은유적인 서술에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거의 우리말로 서술된 부분에서도 드러난다. 작가는 자신이 체험한 감옥 생활을 자세히 서술함으로써 생동감 있는 우리말 표현을 이루기도 했는데, 작가는 이러한 우리말 표현 속에서도 한자어를 적절하게 포함시켜 매우 능숙하게 4자 어구를 만들었다.

침침칠야 봉스거름 첩첩등문 다다르니 / 천간집이 괴이하다 염나국이 이안닌가 /  
 검은삼쌍 털격하며 구둥실쇄 털격근다 / 감옥감옥 드르더니 째뽀지옥 이엇코나 /  
 삼사장간 빈우리가 상하사방 관목이라 / 이툼더툼 바람소리 풍노기가 완년하다 /  
 여기저기 쇠광창은 서리삿치 능난하다 / 덕덕고나 인간갓취 그림자도 영털이오

위는 작가가 처음으로 감옥에 들어갔을 때를 서술한 부분인데, 정확하게 4자 4음보 연속의 형식을 유지하며 우리말 표현을 이루었다. 그런데 예를 들어 “침

침칠야 봉스거름 첩첩등문 다다르니 / 천간집이 괴이하다 염나국이 이안닌가”는 ‘칠혹같이 어두운 밤이라 아무 것도 보이지 않아 봉사가 걷는 것처럼 걸어가 첩첩의 문 앞에 다다랐다. 많은 방들로 이루어진 감옥은 괴이하기 짝이 없어 염라국에 이른 것같았다와 같이 해석될 수 있는 것이다. 우리말로 이루어진 표현 속에서도 한자어를 적절하게 섞음으로써 매우 집약적이고도 생동감 있는 표현을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삼사장간 빈우리가 상하사방 관목이라 / 이틈더틈 바람소리 풍노기가 완년하도”도 역시 ‘서너 丈 크기의 비어 있는 감옥방은 상하사방이 모두 관목으로 되어 있었다. 이 틈 저 틈으로 들어오는 바람 소리는 완연하게 怒氣를 띄었다와 같이 우리말로 길게 해석될 수 있는 것을 우리말로 한자어를 적절하게 섞음으로써 매우 집약적이고도 생동감 있는 표현을 이루었다. 이렇게 작가는 우리말 어구를 사용하여 장면을 묘사한다 하더라도 한자어를 적절하게 섞어 표현함으로써 전체적으로 의미의 집약을 피하면서 생동감 있는 표현을 이루었다.

이렇게 <옥중가>는 거의 4자 4음보 연속의 형식, 중국 고사와 시로 이루어진 고어체 문체, 은유적 표현, 집약적이고 생동감 있는 우리말 표현 문체 등을 동시에 지닌다. 비록 중국 고사, 중국 한시, 한자어 등을 많이 인용하긴 했지만 단순히 한자어에 우리말 토를 달아 단선적인 문체로만 일관한 것이 아니었다.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말과 한자어를 적절하게 조합하여 의미의 집약을 피하며 빠른 호흡으로 시상을 전개해나갔다. 특히 <옥중가>의 우리말과 한자어를 섞어 이룬 집약적인 표현성은 <관동별곡>의 표현성을 연상하게 할 정도로 능숙하고 탁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옥중가>의 다채로운 문체와 표현성은 작가가 내용을 표현하는 데에 각별히 공을 들인 데에서도 기인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작가의 우리말과 한자어를 조합하여 말을 만드는 造語法, 즉 표현 능력이 탁월한 데서 기인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옥중가>는 다양한 문체를 사용하여 탁월한 표현 능력을 보여준 가사 작품이라는 가사문학사적인 의미를 지닌다.

한편 <옥중가>는 장장 440구에 걸쳐 한 독립운동가의 삶과 투옥 과정, 감옥에서의 생활과 에피소드, 감옥에서 느끼는 서정 등을 생생하게 서술했다. <옥중가>는 당대에 독립운동가에게 가했던 일제의 가혹한 고문, 당시 독립운동가를

가두었던 열악한 감옥의 환경, 당시 독립운동가의 수감 생활, 독립운동가는 간혀 있어도 일제의 주도로 돌아갔던 당대의 문명적 사회상 등을 담았으며, 독립운동이라는 의로운 죄로 갇힌 한 독립운동가의 꺼지지 않는 항일정신도 그대로 담았다. 이렇게 <옥중가>는 한 독립운동가가 감옥에서 창작한 가사 작품이기 때문에 당대 독립운동가의 처절한 희생을 생생하게 증언하는 다큐멘터리로 기능할 수 있다. 그러므로 <옥중가>는 일제강점기 한 독립운동가의 저항활동과 일제의 탄압 현실을 생생하게 증언하는 다큐멘터리로 기능한다는 가사문학사적인 의의를 지닌다.

일제강점기에 전개된 독립운동의 초석을 다진 층은 혁신티립이라고 할 수 있다. 혁신티립은 19세기 중엽 즈음에 태어나 성장한 정통티립이면서 19세기 말과 20세기 초에 의병운동이나 애국계몽운동을 하고 1910년 이후에도 독립운동에 참여함으로써 전통에서 근대로의 혁신을 꾀한 티립을 말한다<sup>25)</sup>. 그런데 이렇게 독립운동의 초석을 마련한 혁신티립은 전통적으로 가사문학을 창작하고 향유한 명문대가의 일원이기도 했다. 그리하여 일제강점기의 독립운동가 중에는 가사문학을 창작하여 남기고 있는 분도 있게 되었다. 특히 일제강점 초창기에 만주로 망명하여 독립운동을 이끈 독립지사는 안동을 중심으로 하는 경북지역에서 가장 많이 배출되었다. 그런데 당시 안동은 가사문학을 창작하고 향유했던 중심지였다. 그리하여 일제강점기에 혁신티립이 가장 많이 배출되었으며 가사문학의 창작 중심지였던 안동을 중심으로 한 경북지역에서 독립운동가의 가사문학이 많이 창작될 수 있었다.

<옥중가>는 작가를 특정하지는 못했지만 독립운동가의 작품임에는 틀림이 없다. 공식적으로 추서된 독립운동가의 가사 작품으로 전하는 것은 <입산가>(이중란), <분통가>(김대락), <문소김씨세덕가>(김조식), <중광가> <이세가>(나철), <뉴산일록>(김락), <창의가>(신태식), <세덕가>(김병운), <인곡가>(송기식) 등이 있다. 이들 작품의 작가는 나철 외에는 모두 경북지역의 인물이다. 이러한 독립운동가의 가사문학 작품은 정면으로 나라의 현실을 서술한 것도 있

25) 고순희, 「일제강점기 만주망명지 가사문학-담당층 혁신티립을 중심으로」, 『한국사기문화연구』 제27집, 한국사기문화학회, 2011, 44~48쪽.

고 나라의 현실을 일부분으로 수용한 것도 있는 등 각기 서술한 내용이 다르면서 그에 따라 작가의 독립운동 활동 및 인식의 서술 정도도 다르게 나타난다. 그렇지만 이들 독립운동가의 가사 작품에는 독립운동가의 작품답게 일제강점기 나라의 현실에 대한 개탄이 동일하게 나타난다. 독립운동가의 가사 작품 가운데 <신의관창의가>는 작가 신태식이 출옥한 이후에 창작한 작품이긴 하지만, 기나긴 의병 활동의 전말과 함께 감옥 생활과 투옥 당시의 서정도 서술했다. <옥중가>는 독립운동가가 창작한 가사 작품의 하나이면서 신태식의 <창의가>와 함께 독립운동가의 감옥 생활과 투옥 당시의 서정을 담고 있다는 가사문학사적인 의의를 지닌다.

경술국치 후 일제강점기가 지속되면서 가사문학 작품 중에는 당대의 역사·사회 현실을 수용한 작품도 많아지게 되었다. 1910년대에는 나라를 잃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시기라서 경술국치의 역사적 충격을 담은 가사 작품이 많이 창작되었다. 대표적인 작품으로 <경술국치가>, <한양가>, <문소김씨세덕가>, <신의관창의가>, <대한복수가>, <시절가>, 만주망명가사, 만주망명인을 둔 고국인의 가사 등이 있다<sup>26)</sup>. 그런데 1920년대에 이르면 일제강점기의 역사·사회 현실에 대응한 가사 작품의 창작이 다소 주춤해지는 경향을 보인다. 그리하여 <이강슈포한가라>, <몽유가>, <산촌향가>·<일월산가>·<울분가>, <세덕가>, <인곡가>, <을해춘가> 등의 가사 작품이 확인될 뿐이다. 그런 의미에서 <옥중가>는 1920년대 일제강점기의 역사·사회 현실에 대응한 가사 작품을 풍부하게 해준다고 하겠다. 그리하여 <옥중가>는 일제가 강점한 후인 1910년대에 이어 1920년대에도 역사·사회에 대응해 작품을 창작하는 가사문학사의 큰 흐름을 연속할 수 있게 한 중요한 작품이라는 가사문학사적 의의를 지닌다.

26) 고순희, 「일제강점기 <시절가> 연구」, 『영남학』 제66호, 경북대학교 영남문화연구원, 2018, 379쪽.

## 5. 맺음말

이 논문에서는 <옥중가>의 작품론을 처음 시도하면서 작가를 추정하고, 작품세계를 정리했으며, 그리고 작품의 가사문학적 의의를 규명하였다.

필자는 <옥중가>에 국문으로 쓰인 중국고사나 한시 구절을 해석하려고 노력했지만 한학 지식이 일천한 탓에 아직까지도 일부 구절은 해독하지 못했다. 그리고 작가가 누구인지도 구체적으로 밝히려고 노력했지만 끝내 누구인지를 확정하지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감히 <옥중가>의 작품론을 전개한 것은 <옥중가>를 이대로 방치해두기보다는 일단 학계에 가사를 소개하여 이후의 진전된 논의를 기대하기 때문이다.

특히 이후의 논의는 무엇보다도 작가를 확실하게 규명해주시기를 기대한다. <옥중가>의 작가를 규명하려면 많은 인물의 족보를 확인하고 문중 방문조사가 병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작가 규명은 안동 지역 연구자가 하는 것이 매우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 안동은 독립운동가가 제일 많이 배출된 지역이면서 명문대가가 혼맥으로 서로 얽혀져 있었기 때문에 다양한 명문대가의 족보를 열람하거나 독립운동가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상대적으로 많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논문이 계기가 되어 <옥중가>에 관한 보다 확실하고 심도 깊은 작품론이 이어져 나오기를 기대해 본다.

## 참고문헌

<무제(옥중가)>, 한국가사문학관(<http://www.gasa.go.kr/>)

『시경』

『맹자』

『명심보감』

『의성김씨문충공파보 권하』

『의성김씨대등보 권지삼』

보훈처 공훈전자자료관(<http://e-gonghun.mpva.go.kr>)

디지털안동문화대전(<http://andong.grandculture.net>)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편, 『독립운동사자료집 10-독립군전투사자료집』, 독립유공자사업  
기금운용위원회, 1971, 747~751쪽.

요시미 순야, 이태문 옮김, 『박람회 근대의 시선』, 논형, 2004, 319~321쪽.

안동대학교 안동문화연구소, 『경북독립운동사V- 1920~40년대 국내 항일투쟁』, 경상북  
도, 2014, 183~189쪽.

정휘창·광복회 대구경북연합지구, 『항일독립운동사』, 경상북도, 1991, 211~214쪽.

고순희, 「일제강점기 만주망명지 가사문학-담당층 혁신유립을 중심으로」, 『한국시가문화  
연구』제27집, 한국시가문화학회, 2011, 44~48쪽.

(UCI: G704-001062.2011..27.014)

\_\_\_\_\_, 「일제강점기 <시절가> 연구」, 『영남학』 제66호, 경북대학교 영남문화연구원, 2018,  
379쪽.

심상훈, 「1920년대 초 조선독립운동후원의용단의 활동과 이념」, 『안동사학』 제8집, 안동  
사학회, 2003, 241~270쪽.

| Abstract |

## Research on the <OkJoongGa> written at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Ko, Soon-Hee

<OkJoongGa> is a Gasa which has 440 long lines, and it is in the Korean Gasa Museum. The time of its creation is 1924, and its creation place is Daegu prison.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presume the writer of the <OkJoongGa>, to investigate the world of work, and to clarify the significance on Gasa history.

The writer of <OkJoongGa> is an independent activist from the famous family. The incident described in the <OkJoongGa> was an incident of 'UiYongDan' to support for the independence movement in Daegu at 1922. The writer is presumed to be one of the 42 people arrested and handed over to the trial.

The world of <OkJoongGa> is centered on the writer's prison life and lyricism. <OkJoongGa> has a very systematic narrative structure that is written in temporal order. The writer described in chronological order such as birth and growth, the arrival of Modern civilization, 'uibyeong' activity, 'eulsajoyak' and 'gyeongsulgukchi', life as an independent activist, arrest, imprisonment, prison sight, and prison life and lyricism from the first winter to the 2 years after spring.

<OkJoongGa> has the following significances on Gasa history. It is the Gasa which shows excellent expression ability by using various styles. It functions as a documentary that testify to the resistance activities and Japanese repression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It is a Gasa which contains the life of prison with <ChangUiGa> written by Sin Tae-sik. It is an important work that made it possible to continue the great trend of responding to history and society in the 1920s.

Key words : OkJoongGa, Gasa, Independent-Activist, Daegu, UiYongDan

